

[기윤실 연속포럼 5차 - 종합토론]



모두를 위한 정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창립 초기부터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하며 투표참여 캠페인, 낙천낙선운동, 투개표참관,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시대정신 및 정책 포럼, 사회 분야별 공약 제안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 과제를 살펴보고자 민주주의/ 선거제도/ 권력구조/ 포퓰리즘 등의 주제로 격월간 연속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민주주의>를 상상하며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이어 온 본 포럼은 이제 마지막 종합토론의 장을 열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나의 투표가 가지는 의미,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대리하는 정치인, 권력의 분산과 감시, 이념 지형의 극복에 관심있는 기독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수) 19시 | 기윤실 모임공간 B1 (동네극장,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Ⅰ 모두발언 “민주주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박제민 _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기윤실 정치운동전문위원

Ⅰ 사 회 김현아 _ 기윤실 사무국장

Ⅰ 종합토론 이명진 _ 기윤실 간사

이상민 _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정병오 _ 기윤실 공동대표

조성실 _ 시사평론가, 기윤실 정치운동전문위원

천윤석 _ 변호사, 기윤실 정치운동전문위원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지난포럼 다시보기 www.youtube.com/giyunsil
www.cemk.org 02-794-6200 김현아 국장, 이명진 간사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모두를 위한 정치’ 5차 포럼

사 회 - 김현아 기윤실 사무국장

모두발언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
“민주주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논 찬 - 이명진 기윤실 간사
- 이상민 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 조성실 시사평론가,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
- 천윤석 변호사, 기윤실 정치운동 전문위원

질의응답 및 토론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두발언]

민주주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1)

박제민2)

· 목차

-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틀: 정서적 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혁
- 헌법 너머, 우리 만들어야 하는 세상
- 평가와 과제

·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 민주주의란?
 - 어떤 사상이나 이념(—ism)이라기 보다는
 - 정치체제로써: 시민이 통치하는 정치체제(= ‘민주정’)
 - (그 정치체제가 구현된) 정부로써: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정치적 평등(Dahl 2008)
 - 참정권: 1인 1표, 보통선거, 평등선거
 - 의회를 통한 대표성: 의회에서 나를 대변할 대표의 존재
 - 오늘날에는 참정권 << 의회를 통한 대표성
 -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 직접민주주의 vs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시민(주권자)의 범위	재산 많은 귀족 남성	시민 모두
정치공동체의 규모	마을 도시	국가
공직자의 선발 방식	대다수 추천	정당을 통한 선거
자본주의와 관계	X (노예계급에 의존)	O (시민의 경제활동)

- “직접민주주의가 경제적 압박이 적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고 주장할만한) 지적 능력을 가진 ‘중산층의 로망’일 수 있지만, ‘민중적’이지는 않다.”(박상훈)

1) 모두를위한정치운동 TF 발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2)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전문위원,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의

○ 정치체제로써

■ 시민이 통치하는 정치체제 ⇒ 시민의 동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일정기간 통치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체제

● 딜레마: 의회를 통한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다!

○ 정부로써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 ⇒ 변함없음.

● 딜레마: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누가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는 누구의 이해를 만족시켜야 하는가?

●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누가’, ‘누구’에 대한 대답		시민의 과반수	가능한 많은 시민
5가지 특징	선거제도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정당체계	양당제로 수렴	다당제로 수렴
	행정부	일당단일정부	연립정부
	행정부-입법부 관계	행정부 우위	행정부-입법부 균형
	이익집단	적대적 경쟁	협력적 경쟁
장점		효율 > 권력집중	약자 보호 > 권력분산

● 합의제 민주주의의 우월성

○ “경제성장, 여성의 참정권, 대외원조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결과 다수제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합의제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의 문제에서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거의 차별성이 없으며, 또 이른바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한 사회”(gentler, kindersociety)를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월등하다.”(Lijphart)

·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틀

· 정서적 양극화 해소

- 흔히 한국 사회가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
- 4차 모임 때 하상응 교수가 발제에서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 이념적 양극화는 감소(정파적 재배열)
 - 정서적 양극화는 심화
 - 정치현안에 대한 차이는 심하지 않지만,
 -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감정적으로 상대당을 싫어하는 태도가 지배적
- 두 가지 과제
 - 감정적 혐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정치현안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집단의 배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선거제도 개혁

- 선거제도: 선거에서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
-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 민심 그대로!(사표 X), 투표 그대로!(비례성 ▲)
 - 사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죽은 표, 즉 사표로 불림.
 - 비례성: 선거 결과와 의회 구성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즉 비례적인가?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의 특징: 사표▲, 비례성▼
 - 사표율은 줄었지만...

	투표 수	사표 수	사표율
21대 총선(2020)	28,741,408	12,567,432	43.73%
20대 총선(2016)	24,360,756	12,258,430	50.32%

- 비례성은 더 낮아졌다!
 - 선거의 비례성을 측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 '갤러거 지수'로 계산했을 때,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높다.

	지역구	비례대표
21대 총선(2020)	12.02	6.72
20대 총선(2016)	6.58	5.61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득표율과 의석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

실제) 21대 총선 결과 - (기형적)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은 경우 '캡'조항까지 적용

	지역구 당선자	정당 득표율	조정된 득표율	준연동형 30석	준연동형 17석	비례대표 당선자	21대 결과
더불어민주당	163	-	-	-	-	-	163
더불어시민당	-	33.35	37.44	11	6	17	17
미래통합당	84	-	-	-	-	-	84
미래한국당	-	33.84	37.99	12	7	19	19
정의당	1	9.67	10.86	3	2	5	6
국민의당	0	6.79	7.62	2	1	3	3
열린민주당	0	5.42	6.09	2	1	3	3
무소속/기타	5	-	-	-	-	-	5
합계	253	100	100	30	17	47	300

모형1) 21대 총선 결과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3)

● 배분의석과 결과가 '대체로' 일치함.

	지역구 당선자	조정된 득표율	배분의석	비례 당선자	모형1) 결과	21대 결과	의석수 득실	모형1) 의석률	21대 의석률	의석을 득실
더불어 민주당	163	37.44	112	0	163	178	+15	45.79	59.33	13.55
국민의힘	84	37.99	114	30	114	103	-11	32.02	34.33	2.31
정의당	1	10.86	33	32	33	6	-27	9.27	2.00	-7.27
국민의당	0	7.62	23	23	23	3	-20	6.46	1.00	-5.46
열린 민주당	0	6.09	18	18	18	3	-15	5.06	1.00	-4.06
무소속 /기타	5	-	-	-	5	7	+2	1.40	2.33	0.93
합계	253	100	300	103	356	300	-56	100.0	100.0	0.00

3) 위성정당은 모행성-정당의 비례대표로 계산, 위성정당 참여 소수정당은 원래 정당 소속으로 분류

모형2) 21대 총선 결과 - 의원 정수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

- OECD 평균 국민 약 10만 명 당 국회의원 1인, 한국은 국민 약 16만 명당 1인.
OECD 평균에 맞춘다면 한국은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
- 배분의석과 결과가 '완벽히' 일치함.

	지역구 당선자	조정된 득표율	배분 의석	비례 당선자	모형2) 결과	21대 결과	의석수 득실	모형2) 의석률	21대 의석률	의석률 득실
더불어 민주당	163	37.44	189	26	189	178	-11	36.99	59.33	22.35
국민의힘	84	37.99	192	108	192	103	-89	37.57	34.33	-3.24
정의당	1	10.86	55	54	55	6	-49	10.76	2.00	-8.76
국민의당	0	7.62	39	39	39	3	-36	7.63	1.00	-6.63
열린 민주당	0	6.09	31	31	31	3	-28	6.07	1.00	-5.07
무소속 /기타	5	-	-	-	5	7	2	0.98	2.33	1.35
합계	253	100	506	258	511	300	-211	100.0	100.0	0.0

· 헌법 너머, 우리 만들 세상

- 헌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표준국어대사전)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다른 나라의 헌법 제1조
 - 독일 기본법 제1조
 -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 프랑스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

- 예) 녹색헌법 제1조 “모든 생명은 존엄한 가치가 있다.”

●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더 평화롭고, 자연적이며, 평등하고, 고르게 풍요로운 세상

- 새 헌법은 그 세상의 가치를 기록하여 지키는 매개

· 평가와 과제

● 올 한 해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을 펼친 것을 높이 평가

- “선거에서 사표를 줄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성을 높이며, 성숙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방안을 탐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선거 제도와 정치 개혁의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한다.” (기획안에서 발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책임과 역할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 1987년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 교회개혁뿐만 아니라, 공명선거운동, 반부패법 제정,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등 전개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해야 할 책임과 역할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의제 민주주의 +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한 세상을 위하여!

- (과제1) 감정적 혐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X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모임 지속
 - +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비정파적 모임 개최
- 정치현안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집단의 배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선거제도 개혁: 민심 그대로! 투표 그대로!
 - 바뀌기 어렵고 관심이 적은 일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28 **기실**

35년간 투표를 해 보니

이상민(변호사,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나의 첫 투표는 1987년 대선 투표였다.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인 1985년 2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나, 그 때는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나는 1987년 대선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서 기권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했다. 기계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선에서는 내가 표를 던지는 후보의 당선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했다. 지난 대선은 유일한 예외였다. 습관을 좇아 투표장에 나갔으나 솔직히 누구에게도 투표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는 비밀이지만, 상대 후보의 당선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투표하는 순간에도, 그 후보가 당선되어도 문제라는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오로지 후보자들의 탓인가.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거대 양당은 상대당 덕분에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편이 꼴을 넣어서 축구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편이 자책골을 넣어서 이긴다. 서로 경쟁적으로 정치 혐오를 불러 일으키고, 그리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나마 남은 정까지도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 내년 총선은 지난 대선 2라운드라고 한다. 2022년 대선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으니, 양 진영의 수장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막연하게 가졌던 기대마저 접게 하고 있다. 한 사람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다른 사람은 작은 정치를 향한 집요함으로. 나는 내년에도 저 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므로 이 당에 투표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세워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당은 민주적인가. 혹자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운운하는 정당과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그들이 솔직하다면, 첫째는 나의 당선이요, 둘째는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요, 셋째는 내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하거나 중요 당직을 꿰차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시고, 그들이 더 솔직하다면, ‘내 돈 쓰지 않고 해외 여행도 가고, 줄 설 필요 없이 코로나 검사도 받고, 지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다음 선거나 다른 일에서 도움을 얻고 싶어서’라고 털어 놓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치 혐오증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게 맞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년 선거에도 투표장에 나갈 듯싶다. 왜 그럴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극우들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표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에 빠지고 대낮에 영화관 가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내년에 투표한다면 아마도 마지막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한국정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열망하면서 투표장에 가고 싶다.

한국 정치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길이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에 희망을 주는 길일까.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나는 합리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에 이 나라와 정치의 살 길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한국 사람을 각각 너무도 다르게 만드셨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협업하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다양성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합리성이 사회를 유지한다. 우리 사회는 더 다양해져야 하고 그 다양성이 합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나 극좌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의회들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생각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주어져야 한다. 의회가 품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불가능하면 사회가 병들게 된다. 거대 양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이 국회 처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당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는 양보와 타협이 일상화된다. 의회에서도 집단지성이 작용하게 된다. 수많은 DNA가 섞여서 사회가 건강해지듯이 국회도 여러 생각과 이해관계가 섞이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된다. 그 경우 국론이 분열된다고? 민주주의는 국론분열을 전제하는 제도 아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한 표도 허투루 버려지지 않게 하는 선거제도를 꿈꾸어 본다. 그래서 나도 개봉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가던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달려가고 싶다. 기윤실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과 기운실의 과제

정병오(기운실 공동대표)

1. 한국 민주주의의 틀

- 1) 5년 단임제 대통령선거, 소선거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
- 2) 지방자치제 선거, 중간평가의 성격
- 3)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공직선거법

2.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

- 1) 저항적 민주주의
- 2) 군부 독재 종식 이후 다양한 기득권층의 정치화
- 3) 맹목적 저항의 악순환
- 4) 권력에 대한 견제는 잘 작동하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경험은 부족

3.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제

- 1) 권력구조의 변화(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등) 시도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그나마 자리를 잡은 권력에 대한 견제만 약화시킬 우려
- 2) 선거제도 변화(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
- 3) 지방자치가 더 많은 권력을 향한 디딤돌 혹은 중앙 권력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할을 하지 못함
- 4)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권력, 국가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아닌 자본의 이익에만 종사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대기업, 여론은 물론이고 정권재창출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언론권력,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권력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

4. 한국 민주주의 문화의 과제

- 1)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문제해결의 지혜를 모아가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없음
- 2) 개인의 권리 의식은 성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동선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극단적 민원의 형태로 이어져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음
- 3) SNS의 발달로 소통의 창구가 넓어졌으나 자신의 생각을 강화해주는 알고리즘의 틀에 갇혀 열린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음

5.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기윤실의 노력

- 1) 불법선거 근절 및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노력, 공직선거법 개정에 기여
- 2) 교회의 정치적 중립 및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 3) 건강한 정치인을 키우자는 의견과 시도도 있었다.

6.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윤실의 과제

- 1) 정치제도 개혁 차원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이 부분이 후퇴한다면 다시 어떻게 정치개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에 기윤실도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 2) 우리 사회의 여러 기득권들과의 싸움도 중요한데 기윤실은 종교, 특히 교회나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동원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동원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집중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 3)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특히 기윤실은 교회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일깨우는 아카데미 운영도 필요하다. 